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58분(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 서쪽 기트머리 파키스탄 카라코람산군의 브로드피크(Broad Peak, 8047m) 정상으로 이어지는 칼날 릿지(바위 능선)에 한 산악인이 올라섰다. 만년설과 얼음에 뒤덮인 암릉은 산정을 향해 가파르게 뻗어 가고 있었다. 능선의 폭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이따금 들쭉가지 불어 뿜조자 가늠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열 손가락이 없는 탓에 크램폰(아이젠)으로 설사면을 힘차게 짚으며 두 발로만 균형을 잡아야 했다. 활처럼 휘어진 마지막 릿지를 오르자 반달 모양의 대형 커니스(눈처마)가 나타났다. 그 건너편은 중국 땅으로 깎아지른 낭떠러지여서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른 것이다.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가 모두 그의 발아래 놓이는 순간이었다. 북서쪽엔 ‘하늘의 절대군주’ K2(8611m)의 피라미드가 구름을 뚫고 치솟아 장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남동쪽엔 가셔브롬 I (8068m)·가셔브롬 II (8035m) 등 그가 올랐던 거봉들이 줄지어 도열하고 있었다. 한 순간 도전과 극복의 외길로 거침없이 달려왔던 지난 30년의 풍상(風霜)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갔다.

장애인 세계 최초 14좌 완등 후 실종

김홍빈(57) 대장이 마침내 히말라야 8000m급 14좌(座) 완등을 이뤄 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중증 장애인 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그가 이룬 성과는 거의 기적이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다리가 없어 의족에 의지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산악 에베레스트(8848m)에 올라 감동의 드라마를 쓴 듯 했다. 하지만 김 대장처럼 히말라야 자이언트 봉 14개를 모두 오르거나 그 목표에 도전장을 내민 장애인은 여태껏 없었

아, 김홍빈!

다. 더욱이 그는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까지 달성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성취는 앞으로도 당분간 깨지지 않을 쾌거임이 분명하다. 비장애 등반가까지 포함해도 14좌 완등은 전 세계에서 마흔네 번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박영석·엄홍길·한왕룡·김재수·김창호·김미군에 이어 일곱 번째 대기록이다. 2006년 가셔브롬Ⅱ 등정을 시작으로 14좌를 모두 오르는 데 걸린 기간은 15년. 세계 최초인 라인홀트 메스너(16년)를 비롯해 다른 완등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완등을 달성한 나이 역시 거의 최고령에 속한다. 김 대장의 이번 등정으로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 나란히 일곱 명씩의 최다 완등자를 배출하며 산악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고희이 고향인 김 대장은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첫 완등자이기도 하다. 그의 도전과 성취가 더욱 빛나는 것은 불굴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했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6194m)를 단독 등반하다 동상에 걸려 양손 손가락을 모두 잘라 내야 했다. 손등까지 문드러졌지만 일곱 차례 수술 끝에 그 안에 철심을 박고 뱃살을 이식해 지금의 몸통한 조각손이 만들어졌다. 그래 옷을 입는 것은 물론 용변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동안 실의와 좌절에 빠져 방황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문명처럼 다시 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등반을 통해 스스로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첫 목표는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이었다. 1997년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2009년 남극 빈슨 매시프(4897m)까지 모두 오르는 데 12년이 걸렸다. 사실 등반에서 손가락의 역할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험난하기 그지없는 빙벽과 설벽을 수직 이등하는 데는 더욱 그렇다. 스틱을 잡고, 로프를 당기고, 피켈을 찌는 과정은 손가락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김 대장은 초인적인 의지와 투혼으로 열 손가락이 없는 불변을 극복해 냈다. 이를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탐금질했다. 장애인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와 사이클 선수로 활약하면서 수많은 메달을 따낸 것도 그러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8000m급 14좌 완등은 만만치 않았다. 원정 횡수로 치면 모두 27차례 도전 끝에 이뤄 냈다. 에베

레스트와 마나슬루(8163m)는 세 번씩의 시도 끝에 정상을 밟았다. 여기에는 지역 산악계 선후배들의 도움이 컸다. 이번 원정에서도 비록 정상을 밟진 못했지만, 30년 이상 고락을 함께해 온 유재강(60)·정득채(57)·정우연(53) 대원이 가까이 그의 손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믿는다 꼭 살아 돌아올 것을

그렇게 해서 김 대장은 필생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좌 완등 성공 소식이 알려진 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상을 밟은 후 하산 과정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것이다. '2021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와 광주시산악연맹이 파악한 바를 종합하면 김 대장은 등정 후 19일 새벽 7800m의 중앙봉과 주봉 사이에 위치한 콜(col: 봉우리 사이의 움푹 들어간 안부) 부근을 통과하다 중국 쪽 경사면으로 실족했고, 오전 5시 55분 위성전화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 이에 인근에 있던 러시아 등반대가 사고 지점으로 달려갔고 오전 11시께 김 대장을 발견했다. 러시아 등반대는 김 대장이 손을 흔드는 것을 확인하고 고정 로프를 설치한 뒤 대원을 내려보내 구조에 나섰다. 하지만 김 대장이 주마(등간기)를 이용해 능선으로 오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시산악연맹은 사고수습대책 위원회를 꾸려 수색과 구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를 통해 파키스탄 대사관에 구조 항공기를 요청해 조만간 수색에 나설 예정이고, 중국 대사관에서도 구조 활동에 필요한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는 없다”고 늘 말하던 김 대장.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장애를 딛고 일어난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어 미래 세대의 귀감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우리 사회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김 대장은 이러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장애인이 나 소외 계층 청소년들과 산행을 함께하며 ‘희망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 왔다. 이번 등정 직후에도 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토로했다. 이젠 우리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차례다.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 우리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은펜칼럼



류 동 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에 갇힌 시민들이 들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텃밭에 나와 상추, 토마토, 오이, 고추, 옥수수 등을 가꾸며 맘을 즐기고, 건강한 먹거리를 바꾸기 위해 가는 도시 농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도시농업은 텃밭 뿐만 아니라, 텃논도 있고 양봉도 한다. 새벽에 도시농업 농장에 가보면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잠자리와 나비가 그곳에만 몰려서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이에 찬 감동이 밀려온다. 무당벌레와 청개구리도 뛰어다닌다.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면 지구가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나서 결국 우리 인간도 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만든 이유는 도시민들에게 생태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이다. 도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태적 감동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개발제한구역에 도시농업 농장 확대해야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도시농업 농장은 화장실, 휴게 공간, 관수용 물탱크, 농기구 보관소,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9년에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영 도시농업 농장’ 뿐만 아니라, ‘민영 도시농업 농장’도 개설 근거 조항을 두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소유의 땅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농업 농장과 함께 활성화시켜야 시민들에게 충분한 도시농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한데 민영 도시농업 농장의 등록 조건인 1500㎡(454평)이상을 충족하면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면,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영 도시농업 농장도 필수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물탱크의 자연 수압으로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2m 는 흙을 쌓아서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고, 휴게 공간도 조망권을 위해서는 높이가 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행 50cm 이하 성토 기준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도시농업 농장 시설 설치 때 최소 2m까지는 성토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도시농업 농장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데 있어서 농약을 치는 관행 농지로 놔두거나,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보다 더 생태적이다. 또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져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해하며 구매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에도 광산구에는 다섯 개 농촌동이 있고, 북구에 두 개, 서구와 남구에 한 개씩의 농촌동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농업 농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각종 체험을 진행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농업 관련사 같은 그런 뉴딜 일자리도 창출하면 좋겠다. 지자체는 민영 도시농업 농장의 시설들을 단속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농림부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여 도시농업의 숨통을 더 누는 감동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도시농업 공원을 사군비 총 105억 원을 들여 2만 7254㎡(약 8244평)에 조성하고 있다. 잔디밭 아와 무대와 자연학습장, 농업체험센터, 기장 찰토마토 텃밭, 스마트팜, 너티나무길 및 공영광장, 농업 체험장, 작물 재배원 등의 시설을 함께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개장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서 광주광역시 농촌동에 대규모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도시농업 참여자들은 도농 교류의 선구자가 되어 도농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것이다.

기 고



황 옥 주 수필가

수난의 세월이 너무 길다. 늙아에 어찌다 이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하나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원래가 내포로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젠 아니다. 백신접종만 마쳐면 코로나의 격정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다. 허나 갈수록 태산이다. 뭣지는 몰라도, 델타·감마·람다 변이 등이 불안운 돌우더니 최근 확진은 거의 델타 변이라 한다. 더 격정스러운 것은 ‘뿔뿔’다. 어떤 변이가 또 출현할지 지레 겁부터 난다. 연금 덕에 쌀 걱정은 모르고 산다. 배고픔처럼 큰 서러움은 없는데 이만하면 상팔자인지 몰라도 신나는 날이 없다. 맛난한 삶에 발걸음이 휘청댄다. 언제, 어디

지루한 코로나의 나날

서가 두려워 방안통소 신세다. 땀골다 낮잠 자다 하루가 간다. 더러, 독서나 하겠다는 각오로 책을 사들인다. 새 책을 펼 때만 뿌듯하고 막상 읽으려면 글구멍이 막혀 헛수고다. 서문만 읽고 덮어버린 책도 있다. 어수선한 방바닥에 제복도 있어버린 새 책들이 쌓여간다. 코로나와 독서가 무슨 상관일까만 무기력에 빠진 내 탓은 없고 코로나 탓만 있다. 주변만 더 어수선해져 미혹한 사람은 이어서 딱하다. 사람의 확실한 생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미래는 미지의 세계다. 위대한 포부를 품은 듯한 ‘내일’ 운운은 무능한 자기변명이다. 허나 지금은 ‘내일’이 희망이고 답이다. 개인 의지 밖의 세상살이다. 이런저런 변이가 백신도 뚫어 버린다. 코로나19의 차꼬를 풀 열쇠가 아닌 것이다. 언젠가는 다스려질 일이지만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다. 사람은 태어났면서부터 기다림으로 시작하여 기다림으로 끝난다. 기다림의 처음은 어머니의 젖이였을 것이다. 생득적 터득이 아니라 살기 위한 본이다. 기다림은 무엇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기대다. 보람과 희열

은 순간이고 다음 문제다. 끝 모를 욕망이다. 간간히 오후 늦게 제석산에 오른다. 숲속이 설마 인간세보다 두려우라 싫어서다. 코로나 세상에도 해넘이는 아름답다. 모경은 하루의 마지막에 핀 꽃, 어둠이 삼켜버릴 직전의 식연한 그림이다. 이때쯤이면 흥룡사 종성이 울린다. 불교에서 범종 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이라며 ‘종소리’라 하지 않는다 한다. 33번 모종 울림을 선 채로 헤아리며 마지막 여운이 자자질 때 공연히 울컥하기도 한다. 나만의 감정일까. 귀소 하는 새들의 울음소리와 어울릴 때면 더 그렇다. 모경과 모종, 하루의 아쉬움은 저녁노을에 있고 일년의 아쉬움은 세모에 질설하다는 말에 실감한다. 어느 내일, 약약한 마스크를 벗을 날이 희망이다. 내 인생의 뒤안길을 다듬어본다. 보람줄, 갈피끈을 놓아줄 만한 시절도 있었으리. 글을 쓰면서 늘 조마조마했다. 알갱이 빈 개소리괴소리가 아니기를... 다시 시작이다. 일체는 마음먹기다. 하(何) 시절에 머구름이 걸릴지 요원하지만 느슨해진 마음을 추슬러 볼 데다.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다.

社說

경선 연기 민주당 네거티브 말고 정당당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5일 서울에서 예정된 마지막 순회경선은 10월 10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때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 결선투표에서 선출된다. 경선 일정이 연기된 만큼 전체적인 판세 및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선두에 서서 수성 입장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후발 주자들에게는 따라잡을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추격의 여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경선에도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처럼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에서는 경선 흥행 가능성이 크다며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19일 발표한 대권 적합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46.1%, 이낙연 후보는 42.2%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한자릿수로 줄었다. 2주 전 25.7%포인트에 달했던 데 비해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것이다. 문제는 경선 기간이 길어진 데다 점차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수성과 추격을 위한 후보자들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몇몇 후보들은 ‘거친 입’으로 맞서고 있고 이재명 경거지사는 ‘공격적 방어’로 태세 전환을 예고했다. 하지만 네거티브 공세만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경선 분위기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일 경우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혼수간에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정권 재창출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고 정책으로 정당당당히 승부를 겨뤄야 할 것이다.

경찰, 시민들의 불신 이유 스스로 돌아봐야

억울한 일이나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고소·고발을 통해 경찰 수사에 의지하기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언론사에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A학생의 부친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 지난 5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글을 올렸다. 유족들은 애초 지난 1일 경찰을 찾아 아들이 남긴 유서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추가로 학생들 증언을 가져오라”는 당직 경찰관의 말에 경찰 수사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청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올 초 고속도로에서 수백km나 차량 스톱킹을 당한 한 여성도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관이 ‘범죄가 안 된다’며 돌려보내자 인터넷의 어느 종교자 사이트에 사연을 올렸다. 그때서야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결국 가해 남성은

경찰의 수사로 여죄까지 밝혀져 구속됐다.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의 한 병원에서 허위·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발한 의사 B 씨 역시 “국민청원에 올리고, 언론 보도가 나가기가 제대로 수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는 시민들의 고소·고발에 대한 경찰의 수사 태도가 미온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여기에는 울타리 경정 수사권 조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몰린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업무가 늘어난 경찰이 애매하고 복잡한 사건을 기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른 장구를 찾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상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그동안의 사건 처리 방식을 되돌아보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
|---|--|
| <b>無等鼓</b>  |  |
| <p>이러적인 폭염과 폭우나 홍수 또는 초대형 산불 등 사상 최악의 기후 재난이 지구촌을 덮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에서는 한 달 넘게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에서는 초대형 산불로 12개 주(州)가 초토화됐다.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170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재앙을 맞았다.</p> <p>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났다. 이 같은 기후 재난의 원인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했다.</p> <p>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1.1도 상승한 상태여서, 이 속도대로 진행되면 20~30년 내에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는 인류의 타당한 기준을 살리는 중요한 가치인 셈이다. 1.5도의 가치를 보면, 물 부족 인구 50%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미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기후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p> <p>IPCC는 또 지구의 온도를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 중립을 통해 산업화 이전</p> | <p>수준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했다.</p> <p>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1.1도 상승한 상태여서, 이 속도대로 진행되면 20~30년 내에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는 인류의 타당한 기준을 살리는 중요한 가치인 셈이다. 1.5도의 가치를 보면, 물 부족 인구 50%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미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기후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p> <p>IPCC는 또 지구의 온도를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 중립을 통해 산업화 이전</p> |
| <b>1.5도의 가치</b>   |  |
|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   |  |   |  |
|---|--|---|--|
| <b>光州日報</b>   |  | <b>The Kwangju Ilbo</b>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인내<br>편집 부 220-0649<br>정치 부 220-0632<br>경제 부 220-0663<br>사회 부 220-0652<br>전 남 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br>문화 부 220-0661<br>예 향 부 220-0692<br>사 진 부 220-0694<br>체 육 부 220-0621 | 경영 지 원 국 220-0515<br>(FAX 222-8005)<br>기획 관 리 국 227-9600<br>(FAX 222-0195)<br>디 자 인 실 220-0536<br>*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문화 사업 국 220-0541<br>(FAX 222-0195)<br>무 국 220-0551<br>(FAX 222-0195)<br>서 울 지 사 02-773-9331<br>(FAX 02-773-9335) |